

남부아프리카 초 국경평화공원의 지정학적 접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에 주는 시사점

문 남 철*

A Geopolitical Approach of Transfrontier Peace Park in Southern Africa : Implication for the DMZ International Eco-Peace Park

Moon, Nam Cheol*

요약 : 본 연구는 초 국경평화공원의 세계적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남부아프리카의 초 국경평화공원을 사례로 지정학적 관점에서 (초) 국경공원의 역할과 기능, 형태가 시대적 정치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현재 초 국경평화공원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남부아프리카의 국경공원은 식민지 시대와 아파르트헤이트 시기, 냉전 및 내전시기에 유럽열강의 충돌을 완화하고 광역 식민지를 분리·통치하고 공산주의와 흑인해방운동의 공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역할과 기능을 하였다. 그리고 냉전과 내전, 아파르트헤이트의 종식 이후 국경공원을 통합한 생태학적 초 국경평화공원은 국가 간, 지역 간, 인종 간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남부아프리카의 생태학적 초 국경평화공원은 대립과 갈등의 해소와 평화체제의 구축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국가 간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의 불균형과 백인과 흑인 간의 경제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경제적 지배와 인종집단 간 사회·공간적 갈등이 재생산될 수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주요어 : 국경공원, 초 국경평화공원, 지정학적 접근, 남부아프리카

Abstract :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geopolitical analysis on the role, function and problem of (trans) frontier park in Southern Africa. Frontier parks in Southern Africa had been used as a buffer zone between colonial empires and British colonial administration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d as an interdiction zone of communism and black liberation movement during the apartheid regime, the cold war and the civil war. The ecological transfrontier peace parks in Southern Africa which is integrating the adjacent Frontier parks is utilized as a means of a conflict resolution and peace building after the end of cold war, civil war and apartheid regime. The ecological transfrontier peace parks in Southern Africa is very highly regarded as an effective means for a conflict resolution and peace building. But it is also being criticized for a reproduction of South Africa's politico-economic domination and of a socio-spatial division between racial groups.

Key Words : frontier park, transfrontier (peace) park, geopolitical approach, Southern Africa

1. 서론

탈 냉전 이후 국경지역에 존재하는 완충공간을 생태학적 초 국경평화공원(Transfrontier Peace Park)으로 조성하여 국가 간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¹⁾. 우리나라도 1970년대부터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DMZ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이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DMZ에 생태학적 초 국경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생태관광에 기초한 협력관계로 남·북한 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구

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²⁾.

생태학적 초 국경평화공원은 국경이라는 지정학적 의미와 공원이라는 생태학적 의미가 결합된 공간으로 과거 식민지 시대와 냉전시대에 제국주의 열강들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국경에 만들어진 완충공간을 생태학적 공원으로 조성하여 생물의 다양성과 자연 자원 및 문화자원을 보호·보전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공간이다(www.iucn.org; www.peaceparks.org).

지정학적 의미에서 국경은 인간이 국가의 영역을

* 서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사(Instruct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won University)(mnc83@hanmail.net)

표시하기 위해 자연적 매개물을 이용하여 만들어낸 인공적인 선으로 영역을 지키기 위해 국가 간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이 존재한다(Foucher, 1991; 임덕순, 1997; 문남철, 2014). 이에 반해 생태학적 의미에서 공원은 인간이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계를 보호·보전하고 여가와 휴식을 위해 자연의 일부를 지정 또는 조성하여 관리하는 인공적인 공간으로 대립과 갈등보다는 화해와 협력이 존재한다(Guyot, 2006). 이러한 의미에서 생태학적 초 국경평화공원은 생태학적 공원이 지닌 화해와 협력으로 국경에 존재하는 지정학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따라서 공간과 생태환경을 다루는 지리학의 연구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동안 DMZ 생태학적 초 국경평화공원 조성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정책적인 관점에서 DMZ 초 국경평화공원의 의미와 추진방안 및 과제에 관한 것(박은진, 2013; 손기웅, 2013; 정원영·정철우, 2013; 최준영·이승현, 2013)이었으며, 초 국경평화공원을 사례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³⁾. DMZ 초 국경평화공원의 조성으로 남·북한 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생태학적 초 국경평화공원의 역할과 기능, 공원조성으로 나타날 수는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생태학적 초 국경평화공원⁴⁾의 세계적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남부아프리카를 사례로 지정학적 관점에서 (초) 국경공원의 역할과 기능, 형태가 시대적 정치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현재 초 국경평화공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남부아프리카(Southern Africa)⁵⁾의 국경공원은 식민지 시대와 냉전 및 내전 시기와 아파르트헤이트 시기를 거치면서 유럽열강들의 식민지 쟁탈과 미·소간의 이데올로기 경쟁의 충돌을 완화하고 백인과 흑인을 분리하는 지정학적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냉전 및 내전과 아파르트헤이트의 종식 이후 남부아프리카는 국경공원을 생태학적 초 국경평화공원으로 조성하여 생태관광에 기초한 협력관계로 국가 간, 지역 간, 인종 간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다. 따라서 남부아프리카 초 국경평화공원의 사례는 냉전의 지정학적 산물인 DMZ를 초 국경평화공원으로 조성하여 생태관광에 기초한 협력관계로 남·

북한 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세부적인 분석내용으로는 우선, 이론적 배경으로 탈냉전 이전의 전통 지정학과 탈냉전 이후의 신지정학에서의 공간통제방식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지정학적 관점에서 남부아프리카의 (초) 국경공원의 역할 및 기능, 형태가 탈냉전 이전과 탈냉전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남부아프리카의 초 국경평화공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 남부아프리카의 초 국경평화공원이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조성에 주는 시사점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기존에 발간된 국내·외 문헌과 남부아프리카 평화공원재단 홈페이지(www.peaceparks.org) 및 세계자연보전연맹의 국제 초 국경보전 네트워크(IUCN) 홈페이지(www.iucn.org)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연구방법은 수집된 자료를 지도화 및 도표화하여 설명하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이론적 배경: 전통 지정학과 신지정학

지리적 위치로 표시되는 공간은 국제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및 군사적인 측면에서 서로 다른 지정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및 군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는 공간은 지정학적 가치가 높고,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된다. 국제적인 관계에서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공간의 통제방식을 연구하는 지정학은 탈냉전 이전의 전통 지정학과 탈냉전 이후의 신지정학으로 크게 대별된다.

1) 전통 지정학

탈냉전 이전의 전통 지정학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고전 지정학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탈냉전 이전까지의 냉전시대의 지정학으로 구분된다. 하우스호퍼(Haushofer)의 생활공간론(Lebensraum), 마한(Mahan)의 도서국가(Insular Dominance) 지배론, 맥킨더(Mackinder)의 심장지역(Heartland) 이론, 스파이크먼(Spykman)의 주변지역(Rimland) 이론 등 도식적 모델로 대표되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고전 지정학은 대륙 단위의 거대한 스케일에서의 국가들 간의 권력과 영토, 세력권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국가가 영토를 통제 또는 장취하거나, 영토 밖에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력권을 만들고 확대하는 것을 대상으로 삼았다(Lorot, 1995; 이상근, 2016). 이러한 대륙 단위의 세력권 확대는 식민지 쟁탈과 제국주의 침략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고전 지정학은 식민지 쟁탈과 제국주의 침략을 뒷받침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점차 소멸되었다.

그러나 지정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에서 상대의 군사·외교정책을 봉쇄 또는 견제하기 위한 ‘지전략 모델’로 부활하였다(Lorot, 1995). 냉전시대 지정학은 고전 지정학과는 달리 영토적 팽창을 주장하지 않았지만, 지구적 차원에서 높은 지정학적 가치를 지닌 공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여 상대의 세력권 확대를 봉쇄 또는 견제하고 힘의 우위를 달성하려고 하였다(이상근, 2016).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에서 신생독립국과 독립 정치 세력들은 스스로의 지정학적 위치 평가에 따라 한쪽 진영을 선택하거나 비동맹노선의 표방 등을 선택을 해야 했다.

2) 신지정학

탈냉전 이후 국제정치 환경은 냉전기적 이념 대립의 소멸과 국가 및 지역 간 상호의존성의 증대, 영토 개념 및 국경기능의 약화, 국제기구와 국제규범의 발달 등과 함께 크게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지정학의 관심은 영토주권과 국경문제, 민족주의 등 전통적인 국제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불공정한 경제 문제, 이민과 인구문제, 지하자원과 환경문제 등 다양한 국제적 관계로 확대되었다(Demko and Wood, 1994).

신지정학은 탈냉전 이후의 이와 같은 새로운 지정학적 흐름을 의미하며, 국가 간 갈등과 대립보다는 상생과 협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전통 지정학과는 구별된다. 다시 말해, 탈냉전 이전의 전통 지정학은 우월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력권 확대와 지정학적 가치를 가진 공간을 지배 또는 통제하기 위한 지전략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반해 탈냉전 이후의 신지정학은 무력을 이용한 직접적인 지배 및 통제

보다는 지정학적 가치를 지닌 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협력체를 만들거나 제도를 만들어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새로운 공간통제방식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Dussouy, 2001; 김태환, 2014; 이상환, 2016).

그리고 전통 지정학은 국가를 지정학의 유일한 행위자로 보고 분석과 실천의 기본단위로 삼은 반면에 신지정학은 해당 공간과 관련된 마을과 도시, 지역, 국가 등 여러 층위의 공간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권력을 분석하고, 국가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인과 집단들 사이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권력을 분석한다(이상근, 2016). 즉 신지정학은 상생과 평화와 같은 협력적 구조를 지정학적 요소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갈등적 구조를 상정했던 전통 지정학과는 대비되며, 국가와 영토 중심의 전통 지정학과는 달리 다양한 개인들과 집단들 사이에서 여러 층위의 공간을 넘나들면서 작동하고 있는 권력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탈냉전 이후 다양한 층위의 공간에서 작용하는 협력구조 및 관계보다는 남부아프리카를 사례로 탈냉전 이전과 이후의 지정학적 공간의 통제방식에서 국경 완충공간(국경공원)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3. 남부아프리카 (초) 국경(평화)공원의 역할과 기능

1) 식민지 시대의 국경과 국경공원

(1) 식민제국 간 국경과 국경공원

남부아프리카의 국립공원과 자연보호구역 설치에 유럽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19세기 말 원주민의 무차별적인 수렵으로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지닌 지역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진 유럽 자연보호주의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Guyot, 2006)⁶⁾. 그리고 20세기 초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런던협정(1932년)이 체결된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www.iucn.org).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남부아프리카의 국립공원과 자연보호구역은 유럽 식민제국의 진출과 함께 식민제국 간의 충돌을 완화하고 광역 식민지를 분리·통치하고 인종집단 간의 영역을 분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치되었다.

식민지 시대의 남부아프리카는 식민지를 카이로에서 케이프까지 연속시키려는 영국과 남서아프리카(현, 나미비아)와 동부아프리카의 탄자니아를 연결하려는 독일, 앙골라와 니아살랜드(현, 말라위), 모잠비크를 통합 지배하려는 포르투갈, 그리고 콩고를 중심으로 식민지를 확대하려는 벨기에 등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의 각축장이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에서 남부아프리카의 국경은 유럽 열강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선이었으며, 국경 지역에 설치된 국립공원과 자연보호구역은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확대의 지 전략(geostrategy)에 의해 발생하는 충돌과 분쟁을 완화하는 완충지대의 역할과 기능을 하였다. 특히 이러한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는 국립공원과 자연보호구역은 영국과 포르투갈이 대립했던 남부아프리카의 서부지역에 주로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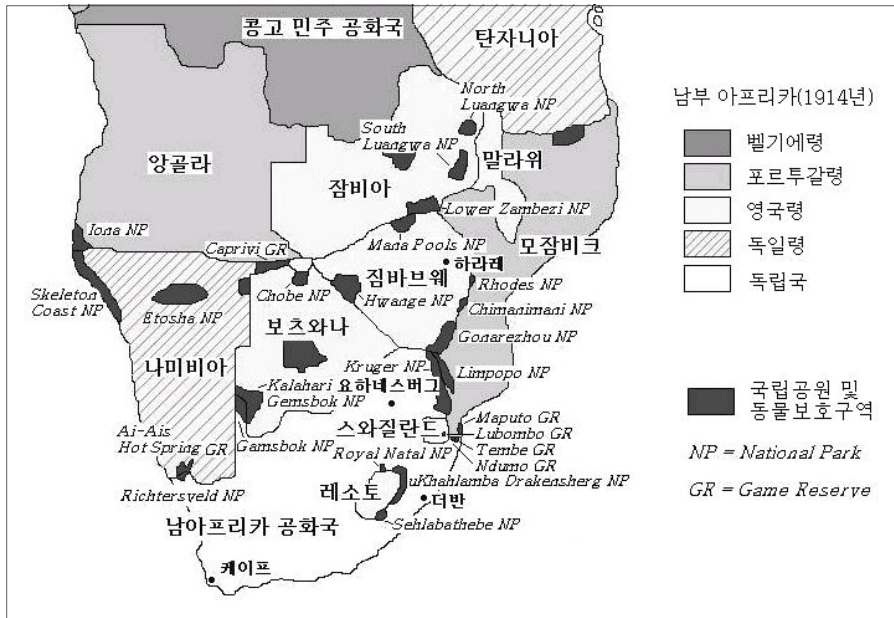
영국과 포르투갈은 영국의 식민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남로디지아(현, 짐바브웨)와 포르투갈의 식민지인 모잠비크 국경에서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모잠비크의 국경지역에 크루거 국립공원(Kruger NP, 1920년)과 은두모 동물보호구역(Ndumo GR, 1925년), 마푸토 동물보호구역

(Maputo GR)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19세기 말에는 남로디지아와 모잠비크 국경지역에 고나레주 국립공원(Gonarezhou NP)과 치마니마니 국립공원(Chimanimani NP), 로데스 국립공원(Rhodes NP)을 설치하였다. 즉 이 시기에 국경지역에 설치된 국립공원과 자연보호구역은 동·식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유럽열강의 충돌을 완화하는 완충지대의 역할과 기능을 하였다.

(2) 영국의 광역 식민지 국경과 국경공원

남부아프리카에서 광역 식민지를 건설한 영국⁷⁾은 효율적인 식민정책을 위해 국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식민지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케이프(Cape), 더반(Durban),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 하라레(Harare), 가보로네(Gaborone) 등 각 식민지의 중심도시가 변경지역을 효율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식민지의 국경지역에 국립공원과 자연보호구역을 설치하였다.

영국은 베추아날란드(현, 보츠와나)와 남서아프리카(현, 나미비아)의 국경지역에 칼라하리 겐스북 국립공원(Karahari Gemsbok NP, 1931)을 설치하였고,



주: 독일의 식민지 나미비아와 탄자니아(1880년대~1919년)는 1차 대전 이후 각각 남아공과 영국 위임통치령 됨

자료: Guyot(2006) 의

그림 1. 남부아프리카의 식민지 분할과 국립공원

베추아날란드와 남로디시아의 국경지역에 황계 국립공원(Hwange NP, 1930)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남아프리카연방과 레소토 국경지역에 드라켄즈버그 국립공원(Drakensberg or Royal Natal NP)을 설치하였다. 이들 국립공원과 자연보호구역은 영국의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광역 식민지를 분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3) 식민지 내부의 경계와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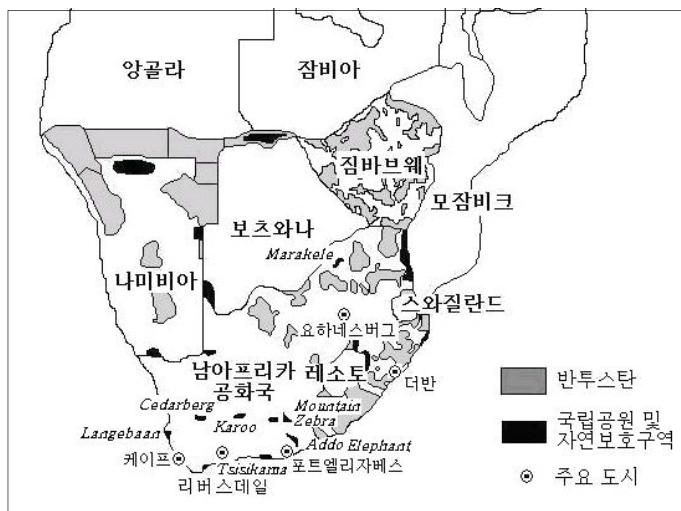
식민지 내부에서의 백인영역과 흑인영역의 분리는 남부아프리카에 정착한 유럽인들이 흑인들을 멸시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이들을 자신들의 공간으로부터 배제하고 격리하면서 시작되었다(Thwala, 2006). 그리고 이러한 분리는 유럽인들이 흑인의 공간을 정복해 가면서 통제의 수단으로 식민지 내부를 식민지 정착민의 소유공간과 흑인 원주민에게 할당된 공간, 자연에 부여된 공간으로 분리하면서 확대되었다. 특히 이와 같은 인종집단 간 영역분리는 백인의 지배가 강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남로디시아, 남서아프리카에서 강력하게 실행되었다.

흑인 원주민의 토지점유구역을 제한하는 원주민 토지법(1913년)의 제정⁸⁾으로 시작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인종집단 간 영역분리(아파르트헤이트)는 반투차치정부추진법(1959년)과 흑인호랜드시민권법

(1970년) 등의 제정으로 흑인의 집단거주지 영역이 10개의 반투스탄(Bantustan)으로 한정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Walker, 2002). 그리고 이러한 인종집단 간 영역분리 정책은 1차 대전 이후 합병(1949년)한 남서아프리카(현, 나미비아)에도 적용하여 흑인의 집단거주지 영역을 10개의 반투스탄으로 제한하고 영역 분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백인의 지배가 강했던 남로디시아도 토지법과 주민등록법 등의 제정을 통해 흑인영역을 제한하고 통제하였다(Roder, 1964)⁹⁾.

유럽인들은 인종집단 간 영역을 분리하는 동시에 흑인들의 백인영역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두 영역 사이에 (국립)공원과 자연보호구역을 설치하였다. 특히 영국계 백인이 정착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남서부 지역에 설치된 아도 엘리펀트 국립공원(Addo Elephant NP, 1931)과 마운틴 지브라 국립공원(Mountain Zebra NP, 1937), 카루 국립공원(Karoo NP, 1979) 등은 백인 정착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흑인들이 백인 거주 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고 차단하는 방어선의 역할과 기능을 하였다(Guyot, 2006).

즉, 식민지 시대에 남부아프리카의 국경지역과 경계에 설치된 국립공원과 자연보호구역은 동·식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유럽 식민제국들 간의 충돌을 완화하고 광역 식민지를 분리·통치하고 흑인과 백인의 영역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 반투스탄(남아프리카 공화국(1986년), 남서아프리카(1978년), 남로디시아(1970년)), 국립공원(1990년)
 자료: Roder(1964) 외

그림 2. 남부아프리카의 반투스탄과 국립공원

역할과 기능은 대 아파르트헤이트(1948년~1993년)와 동·서 간의 냉전 및 내전시기(1960년대~1990년대 초)를 거치면서 크게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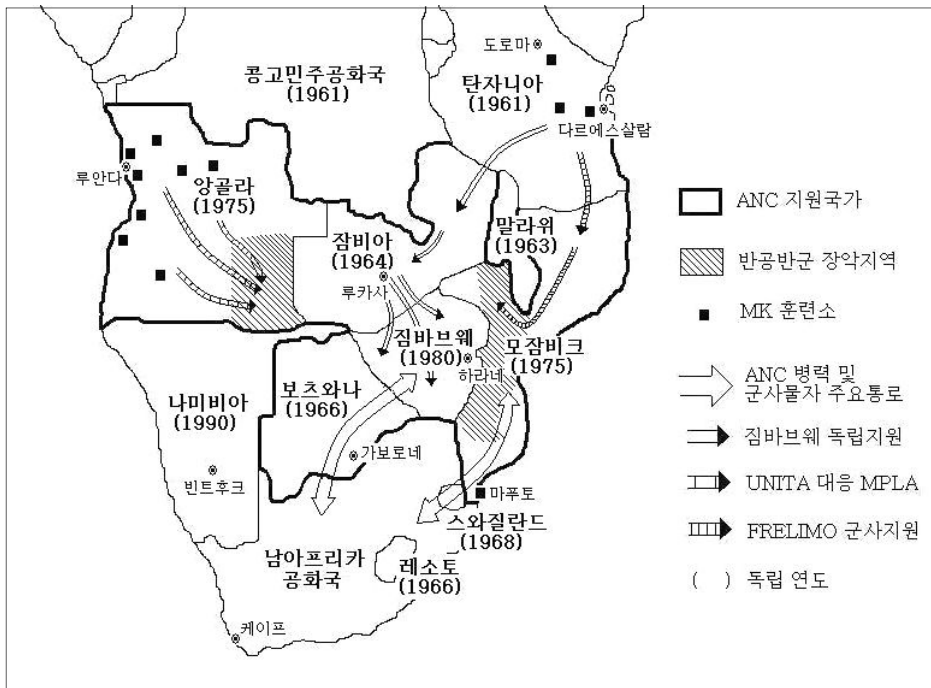
2) 냉전 및 내전 시기와 아파르트헤이트 시기의 국경과 국경공원

(1) 냉전 및 내전 시기와 아파르트헤이트 시기의 국경

1960~80년대 남부아프리카는 강력한 아파르트헤이트를 실행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이에 대항하는 남부아프리카전선제국(South Africa Frontline States, FLS)¹⁰⁾이 대치하는 분열된 양상을 보였다. 또한 식민지로부터의 독립과 함께 전개된 동·서 간의 냉전과 대리전 성격을 지닌 내전으로 국가 간, 지역 간, 인종 간에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보였다.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에서 남부아프리카의 국경지역에 설치된 국경공원과 자연보호구역은 흑인해방운동과 공산주의의 확산을 차단하는 역할과 기능을 하였다(Guyot, 2006).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국민당 정권이 집권한 이후 1950년대 말부터 백인영역과 흑인영역을 완전하게 분리시키기 위해 더욱 강력한 아파르트헤이트를 추진하였다. 이에 반해 식민지에서 독립한 탄자니아(1961년)와 잠비아(1964년), 보츠와나(1966년), 모잠비크(1975년), 앙골라(1975년), 짐바브웨(1980년)는 남부아프리카전선제국(FLS)을 조직하여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항하는 동시에 흑인해방을 주장하는 아프리카 민족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 ANC)를 비롯한 탈 인종주의 혁명세력을 적극 지원하였다.

그리고 독립과 함께 미국과 소련 간의 대리전 형태로 전개된 앙골라 내전(1975~1992년)과 모잠비크 내전(1975~1992년), 남로디지아 내전(1964~1980년), 나미비아 독립분쟁(1966~1990년) 등으로 남부아프리카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백인지배와 흑인해방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과 긴장을 보였다. 앙골라는 독립 직후 소련과 쿠바의 지원으로 집권한 좌익의 앙골라 인민해방운동(MPLA)과 미국과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지원한 앙골라 완전독립민족동맹(UNITA) 및 앙골라 민족해방운동(FNLA) 사



주 : MK(1961년 조직된 ANC 산하 지하 무장조직 '민족의 창'(Umkhonto we Sizwe, MK))
 자료 : Guyot(2006) 의

그림 3. 남부아프리카의 반 아파르트헤이트와 탈 식민주의 운동(1961~1990)

이에 치열한 내전을 겪었고, 같은 해 독립한 모잠비크는 소련의 지원으로 집권한 모잠비크 해방 전선(FRELIMO)과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남로디지아가 지원한 모잠비크 국민저항(RENAMO) 간에 내전을 경험하였다.

또한 소수 백인이 지배한 남로디지아는 소련과 중국이 지원한 반 아파르트헤이트 및 흑인해방운동의 흑인 좌파 짐바브웨 아프리카 인민동맹(ZAPU) 및 짐바브웨 아프리카 민족동맹(ZANU)과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포르투갈이 지원한 백인 우파 로디지아 전선(RF) 사이에 내전을 겪었으며, 이 내전은 먼저 독립한 모잠비크와 잠비아가 흑인 좌파를 지원하면서 더욱 격화되었다. 남서아프리카는 소련과 쿠바, 앙골라, 잠비아 등 공산국가들이 지원한 남서아프리카 인민기구(SWAPO)가 앙골라에 거점을 두고 남서아프리카의 독립과 흑인해방운동 및 아파르트헤이트의 반대운동을 전개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앙골라 완전 독립 민족동맹(UNITA)을 지원하여 앙골라 인민해방운동(MPLA)의 남서아프리카 인민기구(SWAPO)의 지원을 차단하였다(이정록·구동희, 2005).

이와 같은 정치·군사적 상황에서 남부아프리카의 국경은 공산주의와 흑인해방운동의 유입을 차단하는 지정학적 역할을 하였다.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였던 앙골라와 모잠비크, 짐바브웨가 독립함으로써 남서아프리카를 포함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경은 인접국가로부터 유입되는 흑인해방운동과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는 방어선의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되었다.

(2) 냉전 및 내전 시기와 아파르트헤이트 시기의 국경공원

남부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과 함께 구소련의 지원을 받은 공산주의와 흑인해방운동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정치·군사적 상황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정권은 인접국가로부터 유입되는 공산주의와 흑인해방운동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경지역에 설치된 국립공원과 자연보호구역을 활용하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앙골라에 거점을 두고¹¹⁾ 독립과 흑인해방운동을 전개한 남서아프리카 인민기구(SWAPO)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앙골라와 남서아프리카의 국경지역에 카프리비 동물보호공원(Caprivi GR, 1966년)을 확대 설치하였고, 모잠비크로부터 유

입되는 공산주의와 흑인해방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모잠비크의 국경지역에 위치한 크루거 국립공원(Kruger NP)에 철조망을 설치(1959~60년)하여 모잠비크 해방전선(FRELIMO)의 유입을 차단하였다. 또한 크루거 국립공원 내 은두모 동물보호구역(Ndomo GR)은 우파 모잠비크 국민저항(RENAMO)의 배후지원 및 군사훈련 기지로 활용되었다(Guyot, 2006). 즉 이들 국경지역의 국립공원과 자연보호구역은 공산주의와 흑인해방운동의 유입을 차단하는 지정학적 역할과 기능을 하였다.

아파르트헤이트 시기와 냉전 및 내전 시기에 공산주의와 흑인해방운동의 확산을 차단하는 역할과 기능을 하였던 남부아프리카 국경지역의 국경공원과 자연보호구역은 냉전 및 내전의 종식과 아파르트헤이트의 종말과 함께 새로운 역할과 기능, 형태로 변화하였다.

3) 탈 냉전 및 내전과 탈 아파르트헤이트 이후의 초 국경평화공원

(1) 초 국경평화공원 설립을 위한 협력

남부아프리카는 냉전 및 내전과 아파르트헤이트로 초래된 국가 간, 지역 간, 인종 간 대결과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국경지역의 국립공원과 자연보호구역을 통합하여 조성한 생태학적 초 국경평화공원을 활용하고 있다. 남부아프리카의 초 국경평화공원은 접경국가 간 우호적 관계와 평화를 상징하기 위해 설치한 초 국경공원과는 달리 지정학적 목적에 의해 오랜 기간 동안 인공 장애물로 차단·분리되어 있던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태관광에 기초한 협력관계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다(www.peaceparks.org).

그러나 국경을 초월한 생태학적 초 국경평화공원의 조성은 해당 국가 간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를 둘러싼 주변국가 간의 이해관계와 조성에 따르는 인적, 재정적, 기술적 문제로 실행에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남부아프리카의 초 국경평화공원의 설립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세계야생동물기금(WWF), 평화공원재단(Peace Parks Foundation), 세계은행(World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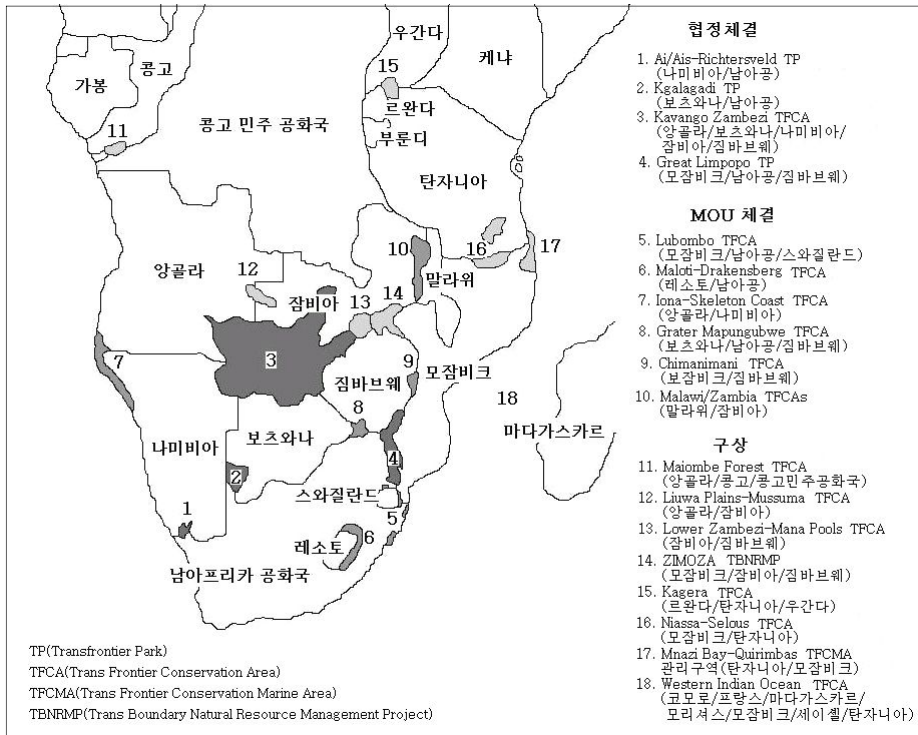
등 초국가 기구와 초국가 비정부기구, 해당국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다양한 수준의 기관과 단체, 관계자들 간의 오랜 논의와 협력에 의해 실행되었다 (Hanks, 2003; Giraut *et al.*, 2005).

자연자원과 천연자원의 보전을 지원하는 초국적 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1980년대 말 남부 아프리카 국경지역의 훼손되지 않은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초 국경보호구역의 설치에 적합한 잠재적 최적지로 지정하고 초 국경보호구역의 실행에 필요한 인적, 기술적 자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야생동물 환경보호의 초국적 비정부 기구인 세계야생동물기금(WWF)의 남아프리카 지부 회장이었던 대부호 사업가 안톤 루퍼트(Anton Rupert)는 1990년대 초 모잠비크 대통령과 인간의 간섭 없이 야생동물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통합에 대해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 단체의 지원으로 1997년 남부아프리카 초 국경평화공원의 설치에 필요한 일들을 지원하기 위해 네덜란드 베르나드 왕자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후견인으로 하

는 평화공원재단(Peace Parks Foundation)이 설립되었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과 세계 거대은행은 초 국경평화공원의 조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World Bank, 2004). 그리고 해당국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남부아프리카를 대립과 갈등·분쟁의 지역이 아닌 평화롭고 자유로운 혁신적인 자연보전지역으로 지역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대화를 통한 신뢰구축으로 초 국경평화공원의 개발에 협력하였다.

(2) 남부아프리카의 초 국경평화공원

현재 남부아프리카에는 그레이트 림포포 초 국경평화공원(Great Limpopo TPP)을 포함하여 18개의 초 국경평화공원이 운영 중이거나 조성 및 구상 중에 있다(www.peaceparks.org). 남부아프리카에 설치된 초 국경평화공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칼라하리 겐즈북 국립공원(Kalahari Gemsbok NP)과 보츠와나의 겐즈북 국립공원(Gemsbok NP)을 통합하여 칼라가디 초 국경평화공원(Kgalagadi TPP, 2000년)이



자료 : www.peaceparks.org

그림 4. 남부아프리카의 초 국경평화공원

구성되었고, 남아프리카의 공화국의 우카홀람바 드라켄즈버그 국립공원(uKahlamba Drakensber NP)과 레소토의 세라바테베 국립공원(Sehlabathebe NP)을 연결하여 마로티-드라켄즈버그 초 국경평화공원(Maloti-Drakensberg TPP, 2001년)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리흐터스펠트 국립공원(Richtersveld NP)과 나미비아의 아이-아이스 핫 스프링스 동물보호구역(Ai-Ais Hot Springs GR)을 통합하여 아이-아이스/리흐터스펠트 초 국경평화공원(Ai-Ais/Richtersveld TPP, 2003년)이 설치되었다. 이들 초 국경평화공원은 과거 식민지 시대에 광역 식민지를 지배한 영국이 식민지를 분리·통치하기 위해 국경지역에 설치하였던 국립공원과 자연보호구역을 통합하여 조성되었다.

그리고 모잠비크의 남부와 스와질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북동부 사이의 국경지역에 설치된 루봄보 초 국경평화공원(Lubombo TPP, 2000년)은 모잠비크의 마푸토 동물보호구역(Maputo GR)과 스와질란드의 루봄보 동물보호구역(Lubombo GR),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템브 동물보호구역(Tembe GR)을 통합하여 조성되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모잠비크, 짐바브웨 사이의 국경지역에 걸쳐 있는 그레이트 림포포 초 국경평화공원(Great Limpopo TPP, 2002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크루거 국립공원(Kruger NP)과 모잠비크의 림포포 국립공원(Limpopo NP), 짐바브웨의 고키나레조우 국립공원(Gonarezhou NP)을 통합하여 만들어졌다. 또한 앙골라와 보츠와나, 나미비아, 잠비아, 짐바브웨 등 5개국의 국경지역을 잇는 44만 km²에 달하는 카방고-잠베지 초 국경평화공원(Kavango-Zambezi TPP, 2011년)은 짐바브웨의

황게 국립공원(Hwange NP)과 보츠와나의 초베 국립공원(Chobe NP), 나미비아의 카프리비 국립공원(Caprivi NP, 현 Bwabwata NP), 앙골라의 루이아나 보호구역(Luiana Partial Reserve), 잠비아의 카푸에 국립공원(Kafue NP)을 통합하여 조성되었다. 이들 초 국경평화공원은 과거 식민지 시대에 유럽열강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국경지역에 조성된 국립공원 및 자연보호구역과 아파르트헤이트 시기와 냉전 및 내전 시기에 공산주의와 흑인해방운동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지역에 설치된 국립공원과 자연보호구역을 통합하여 만들어졌다.

다시 말해, 남아프리카의 초 국경평화공원은 과거 대립과 갈등의 시대에 완충기능과 분리·차단기능을 위해 국경지역에 설치된 국경공원과 자연보호구역을 통합하여 접촉기능과 연결기능을 통해 국가 간, 지역 간, 인종 간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평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다.

(4) 초 국경평화공원의 문제점

① 정치-경제적 지배의 재생산

남부아프리카의 생태학적 초 국경평화공원은 국가 간, 지역 간, 인종 간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체계의 구축과 지역사회의 개발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Rusinga and Mapira, 2012), 과거 식민지 시대와 아파르트헤이트 시기, 냉전 및 내전 시기에 형성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경제적 지배와 인종집단 간의 사회-공간적 갈등을 재생산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Singh and Houtum, 2002; Spenceley, 2006).

표 1. 그레이트 림포포 초 국경평화공원의 연평균 추정 관광객 및 관광수입

	남아공	짐바브웨	모잠비크
전체 관광입국자(천명)(A)	5872.3	1966.6	400.0
생태 관광입국자(천명)(B)	4634.5	1494.4	42.0
비율(B/A)	78.9	76.0	10.5
전체 관광수입(백만\$)(C)	4561.7	184.1	-
생태 관광수입(백만\$)(D)	2298.8	143.5	8.4
비율(D/C)	50.3	77.9	-
여행·관광산업GDP(백만\$)	3,563.9	158.8	-

자료 : Spenceley(2006)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일찍이 유럽의 정치·경제체제를 받아들여 남부아프리카를 정치·경제적으로 지배해 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경제적 지배는 초 국경평화공원에서도 우월한 관광 인프라와 뛰어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바탕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크루거 국립공원과 모잠비크의 림포포 국립공원, 짐바브웨의 고나레초우 국립공원을 통합하여 설립된 그레이트 림포포 초 국경공원(Great Limpopo TPP)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크루거 국립공원은 수준 높은 자연보호 전문가와 공원계획 전문가, 뛰어난 관리시설과 관리능력으로 3개 공원 가운데 월등히 많은 관광객(587만 명)과 높은 관광수입(46억 달러)을 올리고 있으며, 아름다운 생태계의 보전으로 생태관광객이 높은 비중(78.9%)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모잠비크의 림포포 국립공원은 오랜 기간 동안(1975~1992) 진행된 내전으로 야생생태계와 관광 인프라가 파괴되고 부족한 자연보호 전문가와 공원계획 전문가, 관리시설과 관리능력의 부족으로 전체 관광객 수는 크루거 국립공원의 1/15(40만 명)에 불과하고 생태관광의 수입은 1/274(8백만 달러)에 불과하며 생태관광객의 비중(10.5%)도 매우 낮다(Spenceley, 2006). 이와 같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경제적 지배로 그레이트 림포포 초 국경평화공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크루거 국립공원의 확장이라고 지적받기도 하고 생태 제국주의라고 지칭되기도 한다(내셔널 지오그래픽, 2001).

② 사회-공간적 갈등의 재생산

남부아프리카의 초 국경평화공원은 급진주의적 관점에서 유럽인들이 갖고 있는 아프리카의 야생동물공원에 대한 로맨틱한 드림과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가 결합된 것으로 백인들의 재식민지화를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Moore, 1997; Singh and Houtum, 2002). 이들은 남부아프리카의 초 국경평화공원은 진귀하고 다양한 동물들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는 생태계로 복원하여 생태관광을 통해 아프리카의 르네상스를 추구하려는 백인 보수주의자들의 이해와 화해와 평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사회적 재분배를 추구하는 흑인 정치가들의 이해가 합쳐져 추진되었다고 보고 있다(Draper et al., 2004). 또한 이들은 국가 간, 인종집단 간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

의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초 국경평화공원은 협력과 사회적 재분배,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품의 불법유통과 불법 이주민,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켜 국가 간, 지역 간, 인종 간 충돌과 논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Amerom and Büscher, 2005).

그리고 이들은 초 국경평화공원은 손대지 않은 자연경관과 흑인 원주민의 생활문화를 보기 위해 백인 관광객들은 비용을 지불하고 흑인 원주민들은 백인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전통 생활양식을 제공하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과거 백인 정착민과 흑인 원주민 사이에 존재했던 사회-공간적 갈등이 초 국경평화공원의 내부에서 재생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Ferreira, 2003; Draper & Mare, 2003).

4. 결론 :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에 주는 시사점

국가 간 존재하는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과거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경의 완충공간을 생태학적 초 국경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DMZ를 생태학적 초 국경평화공원으로 조성하여 생태관광에 기초한 협력으로 남·북한 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DMZ 초 국경평화공원의 의미와 추진방안 및 과제에 관한 것이며, 초 국경평화공원을 사례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적 의미의 생태학적 초 국경평화공원 설치운동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남부아프리카의 초 국경평화공원을 사례로 지형학적 관점에서 (초) 국경공원의 역할,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현재 초 국경평화공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을 통해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남부아프리카는 식민지 시대와 냉전 및 내전시기와 아파르트헤이트 시기를 거치면서 유럽열강들의 식민지 쟁탈과 미·소간의 이데올로기 경쟁, 백인과 흑인 간의 대립으로 국가 간, 지역 간, 인종 간의 대립과 갈등이 격심했던 지역이다. 이러한 시대적 정치상황에

서 남부아프리카의 국경은 열강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국경이었고, 국경지역에 설치된 국립공원과 자연보호구역은 유럽열강의 식민지 쟁탈의 충동을 완화하고 광역 식민지를 분리·통치하고 공산주의와 흑인해방운동의 공간적 확산을 차단하고 백인과 흑인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역할과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냉전과 내전, 아파르트헤이트의 종식 이후 남부아프리카는 과거 차단과 분리의 지정학적 목적으로 국경지역에 설치되었던 국립공원과 자연보호구역을 통합하여 생태학적 초 국경평화공원을 조성하여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가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부아프리카의 생태학적 초 국경평화공원의 사례는 냉전시대의 지정학적 산물인 DMZ의 천혜의 공간을 생태학적 초 국경평화공원으로 조성하여 생태관광에 기초한 협력으로 남·북한 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남부아프리카의 생태학적 초 국경평화공원이 국가 간, 지역 간, 인종 간 대립과 갈등의 해소와 평화체제의 구축 및 지역사회의 개발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국가 간 관광개발 인프라와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의 불균형과 백인과 흑인 간의 경제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경제적 지배와 인종집단 간 사회-공간적 갈등을 재생산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또한 국가 간, 인종집단 간 인적·재정적·기술적 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초 국경평화공원은 협력과 사회적 재분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촉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품의 불법유통과 불법 이주민,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켜 국가 간, 지역 간, 인종 간 충돌과 논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따라서 DMZ 생태학적 초 국경평화공원 조성은 남·북한 간 대립과 갈등의 해소와 평화체제의 구축에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이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 관광개발 인프라와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의 불균형과 남·북한 주민 간의 경제적, 문화적 수준의 차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논문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남부아프리카의 (초) 국경공원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한 논문으로 남부아프리카의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진 초 국경평화

공원의 조성과 관련된 다층적 행위자들 간의 갈등과 협력, 정치적 실행과정,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이에 대한 연구는 인접학문의 몫으로 남겨둔다.

주

- 1) 세계 초 국경(평화)공원의 수는 1988년 59개에서 2001년 169개, 2007년 227개로 크게 증가하였다(www.iucn.org).
- 2) 1970년대부터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DMZ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이 국내·외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1979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DMZ 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하였고 1992년에도 유엔환경계획(UNDP)과 함께 DMZ 국제자연공원 조성을 제안하였으며, 2004년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는 생태학적 초 국경평화공원 개념의 DMZ 세계평화공원의 설치를 역설하였다. 국내에서도 1970~80년대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이산가족 교류를 위해 DMZ 내 공동경기장 건설과 ‘통일평화시’ 건설 등을 북한에 제의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DMZ의 천혜의 자원을 이용한 생태학적 초 국경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3) 초 국경평화공원의 사례연구로는 흥해해양평화공원 사례분석(장원근·최지연, 2005)과 독일의 그뤼네스 반트 경험과 교훈(고상두, 2013), 분단·대립 접경지역의 해외사례 연구(박은진 외, 2012) 등이 있으나 이들 연구 또한 정책적인 관점에서 수행되었다.
- 4) 국가 간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현대적 의미의 생태학적 초 국경평화공원의 개념은 199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모잠비크, 짐바브웨의 3국의 국경지역에 초 국경평화공원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평화공원재단(Peace Parks Foundation)이 설립되면서 사용되기 시작되었다. 이후 초 국경평화공원은 국제기구와 설립목적에 따라 초 국경공원(TP), 초 국경보전구역(TFCA), 초 국경해양보전구역(TFCMA), 초 국경자연자원관리계획(TBNRMP), 초 국경보전구역(TBCAs), 초 국경보호구역(TPA), 초 국경자연자원관리구역(TNRMA), 평화공원(peace parks), 평화를 위한 공원(parks for peace) 등 다양한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생태학적 초 국경평화공원의 개념은 남부아프리카 평화공원재단의 초 국경평화공원(TPP)을 의미한다.
- 5)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의 동질요소를 지표로 하는 지역 구분은 점이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역을 구분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남부아프리카(Southern Africa)는 지리적으로 앙골라와 모잠비크를 잇는 경계선의 이남에 위치한 11개의 국가(앙골라, 보츠와나, 잠비아, 짐바브웨,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레소토, 남아프리카 공화국, 마다가스카르)를 말하며, 경제적으로는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회원국 15개국(지리적 남부아프리카 국가+탄자니아, 콩고 민주공화국, 모리셔스, 세이셸)을 지칭한다. 본 연구에

서의 남부아프리카는 지리적으로 남부아프리카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 중 섬나라인 마다가스카르를 제외한 10 개국을 포함한다.

- 6) 1884년 전 보어 공화국의 마지막 수반이었던 폴 크루거 (Paul Kruger) 대통령은 원주민의 무차별적인 수렵으로 인해 급속히 줄어들어 들어드는 야생동물의 현실을 인식하고 트란스발 주에 국립공원의 지정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고 1887년 사비에 동물 보호구역을 포함한 3개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지정되었다. 이 가운데 사비에 동물보호구역(Sabie Game Reserve)이 1925년 크루거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크루거 국립공원(Kruger NP)으로 지정되었고, 이 국립공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립공원체제의 기초가 되었다.
- 7) 영국은 남부아프리카에서 케이프 식민지와 나탈 식민지, 트란스발 공화국, 오렌지자유국을 합병하여 영연방의 남아프리카연방(1910년)을 수립하였고, 바수톨란드(현, 레소토)와 베추아날란드(현, 보츠와나), 스와질란드, 북로디지아(현, 잠비아), 남로디지아(현, 짐바브웨), 니아살랜드(현, 말라위)를 자치식민지로 통합하였다. 또한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독일의 식민지였던 남서아프리카(현, 나미비아)를 식민지화 하였다.
- 8)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집단 간 영역분리(아파르트헤이트)는 흑인 원주민의 토지점유구역을 제한하는 원주민 토지법(1913년)을 시작으로 흑인의 도시지역 거주와 토지구매를 제한하는 거주지 분리의 원칙(1923년)과 원주민법률개정안(1937년) 등의 제정과 함께 확대되었다. 특히 흑인영역의 공간적 통제는 백인이 지지하는 국민당이 집권(1948년)한 이후 본격화되었다. 국민당 정부는 백인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집단지구법(1950년)과 반투자치법(1951), 불법거주금지법(1951년), 원주민제정착법(1954년), 통행법(1959년) 등을 통해 흑인영역의 공간적 통제를 강화하였다(장용규 외, 2012).
- 9) 식민지 내부에서 인종집단 간 영역분배는 매우 불평등하고 이중적인 구조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전체 인구의 14%에 불과한 백인이 전체 토지의 85% 이상을 소유하였고, 남로디지아는 0.6%에 불과한 백인이 경작 가능한 토지의 70%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나미비아는 전체 인구의 6%에 불과한 백인이 전체 토지의 44% 이상을 점유하였다(중앙일보 2002.02.23). 또한 백인은 도시지역과 비옥하고 풍부한 자원이 있는 넓은 영역을 개인이 소유한 반면에 절대 다수를 차지한 흑인 원주민은 공원과 자연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척박하고 빈약한 자원을 가진 협소한 영역을 집단소유로 할당받았다 (Giraut *et al.*, 2005).
- 10) 1960~80년대 식민지에서 독립한 남부아프리카 국가들은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는 탈 인종주의 혁명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부아프리카전선제국(South Africa Frontline States, FLS)을 조직하였다. 이 조직의 지원을 위해 1960년대 식민지에서 독립한 탄자니아와 잠비아, 보츠와나가 참여하였고 1970년대 독립한 모잠비크와 앙골라 짐바브웨가 합류하였다.
- 11) 남부아프리카에서 지리적으로 먼 앙골라와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민족회의(ANC)를 비롯한 흑인해방 지하무장 조직의 병력을 훈련하여 공급하는 근거지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반공반군이 강력한 앙골라의 남동부와 모잠비크의 서부지역은 공산주의와 흑인해방운동을 남부아프리카로 확산시키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였다.

문헌

- 고상두, 2013, 독일 통일 전후 그뤼네스 반트 경험과 교훈,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신뢰와 평화, 희망의 DMZ 세계평화공원', 37-51.
- 김태환, 2014, '신 북방정책'으로서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신 지정학적 접근'의 외교 전략적 함의, 주요국제문제분석 2014-33, 145-165.
- 문남철, 2014, 유럽연합의 국경소멸과 국경기능 변화, 국토지리학회지, 48(3), 161-175.
- 박은진·심숙경·이성대·최용환·황금희, 2012, 분단·대립 접경지역의 해외사례와 한반도 DMZ의 시사점, 이슈 & 진단, 44, 1-21.
- 박은진, 2013, DMZ 세계평화공원과 접경지역의 미래, 이슈 & 진단, 104, 1-26.
- 손기웅, 2013, 'DMZ 세계평화공원'의 의의와 추진방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8월호, 18-26.
- 정원영·정철우, 2013,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의 의미와 방안, 주간국방논단, 13(1478), 1-8.
- 이강우, 2013, DMZ 세계평화공원 어떻게 할 것인가?, DMZ 세계평화공원 토론회자료, 56-60.
- 이상근, 2016, 한국사회의 통일론과 신지정학적 인식, 동서연구, 28(3), 149-176.
- 이상환, 2016, 신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동북아 영토 갈등 문제, 정치·정보연구, 19(1), 29-50.
- 이정록·구동희, 2005, 세계의 분쟁지역, 푸른길, 서울.
- 임덕순, 1997, 정치지리학원리-이론과 실제, 제2판, 법문사, 서울.
- 장원근·최지연, 2005, 홍해해양평화공원 사례 분석 및 남북 접경지역 해양 환경 협력 시사점, 해양수산, 252, 37-52.
- 장용규·황규득·설병수·강경화·베텔, 2012, 남아공의 토지문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준영·이승현, 2013,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과제, 이슈와 논쟁, 703, 1-4.
- Amerom, M. van. and Büscher, B., 2005, Peace parks in Southern Africa: bringers of an

- African Renaissanc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43(2), 1-24.
- Denko G. J. and Wood, B.W., 1994, *Reordering the world: Geopolitical perspectives on the twenty-first century*, Westview Press, Boulder San Francisco Oxford.
- Dussouy, G., 2001, *Quelle géopolitique au XXIe siècle?*, Les Ed. Complexe, Paris.
- Draper, M. and Mare, G., 2003, Going In : The Garden of England's Gaming Zookeeper and Zululand, *Journal of Southern African Studies*, 29(2), 551-569.
- Draper, M., Spierenburg, M. and Wels, H., 2004, African dreams of cohesion: Elite pact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in transfrontier conservation areas in southern africa, *Culture and Organization*, 10(4), 341-353.
- Ferreira, S., 2003, Problems associated with tourism development in Southern Africa: The case of Transfrontier Conservation Areas, *GeoJournal*, 60, 301-310.
- Foucher, M., 1991, *Fronts et frontières, un tour du monde géopolitique*, Fayard, Paris.
- Giraut, F., S. Guyot, S. and Houssay-Holzschuch, M., 2005, La nature, les territoires et le politique en Afrique du Sud, *Annales HSS*, 4, 695-717.
- Guyot, S., 2006, Géopolitique des parcs (trans) frontières en Afrique Australe, *Les Cahiers d'Outre-Mer*, 234, 215-232.
- Hanks, J., 2003, Transfrontier Conservation Areas (TFCAs) in southern Africa: their role in conserving biodiversity,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promoting a culture of peace, *Journal of Sustainable Forestry*, 17 (1-2), 127-148.
- Lorot, P., 1995, *Histoire de la Géopolitique*, Economica, Paris.
- Metcalf, S., 2003, Impacts of Transboundary Protected Areas on Local Communities on Three Southern African Initiatives, *Paper prepared for the workshop on Transboundary Protected Areas in the Governance Stream of the 5th World Parks Congress*, 1-27.
- Moore, R., 1997, African 'Peace Parks' : the new colonialism, *Executive Intelligence Review*, 10, 48-49.
- Roder, W., 1964, The division of land resources in South Rhodesia,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54(1), 41-52.
- Rusinga, O. and Mapira, J., 2012, Challenges of transfrontier conservation areas: Natural resources nationalism, security and regionalism in the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region, *International Journal of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1(3), 675-687.
- Singh, J. and Houtum, H.V., 2002, Post-colonial nature conservation in South Africa: some emperors, new clothes, *GeoJournal*, 58, 253-263.
- Spenceley, A., 2006, Tourism in the Great Limpopo Transfrontier Park, *Development Southern Africa*, 23(5), 649-667.
- Thwala, W.D., 2006, Land and Agrarian Reform in South Africa, in Rosset, P., Patel, R. and Couville, M.(eds.), *Promised Land Competing Vision of Agrarian Reform*, Land Research Action Network, Oakland, 57-72.
- Walker, C, 2002, Agrarian Change, Gender and Land Reform: A South African Case Study, *UNRISD Programme Paper on Social Policy and Development*, 10, 1-83.
- World Bank, 2004, Mozambique-Transfrontier conservation areas pilot and institutional strengthening project, Maputo, *World Bank*, 31.
- 내셔널 지오그래픽(한국판), 2001, 국경 없는 동물의 왕국(2001년 9월호)
- 중앙일보, 2002, 아프리카 토지반란 확산(2002.02.23) <http://www.iucn.org>(IUCN 국제 초 국경보전 네트워크)
- <http://www.peaceparks.org>(남부아프리카 평화공

남부아프리카 초 국경평화공원의 지정학적 접근 :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에 주는 시사점

원재단)

- **교신** : 문남철, 28674, 충북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77-3,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mnc83@hanmail.net, 전화: 043-229-8380)
- Correspondence : Moon, Nam-Cheol, 28674,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won University, 377-3 Musimseoro, Seowongu, Cheongju, Korea(E-mail: mnc83@hanmail.net, Tel: +82-43-229-8380)

(접수: 2017.04.06, 수정: 2017.05.12, 채택: 2017.05.20)